AI상담봇 '해심이' 더 깊어져 돌아왔다

5월 15일 리뉴얼 버전 오픈
'제미나이+클로드' 활용으로
상담 커뮤니케이션 기능 강화
현대불교신문 캐릭터 '초심이'
공식 인스타그램 계정 오픈도

신중일 기자 motp79@hyunbul.com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이'.


현대불교신문 공식 캐릭터 '초심이'.

지난해 4월 서울국제불교박람회에서 처음 선보인 현대불교신문 AI상담봇 '해심(解心)이'가 더욱 강화된 기능과 새로운 캐릭터로 돌아왔다. 불교 상담과 마음 치유를 넘어, 불교 콘텐츠와의 연계성을 높인 대화형 서비스로 진화했다.

현대불교신문(대표 한명우)은 AI 기술을 활용한 불교 상담 서비스 '해심이'의 리뉴얼 버전을 개발해 5월 15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서비스 중이다.

기존 버전은 구글 제미나이 무료 버전과 AI 검색 기능을 기반으로 불자 맞춤형 신행 상담과 마음 치유·명상·수행 관련 조언을 제공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이번 리뉴얼 버전은 제미나이의 검색 기능에 클로드 기반의 대화 방식을 접목해 사용자와의 소통 기능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리뉴얼 작업을 맡은 김영찬 AJ네트웍스 서비스로봇 영업팀 매니저는 "실제 사용자가 더 편하게 대화할 수 있도록 완성도를 높이는 데 초점을 맞췄다"며 "단순히 불교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사용자의 고민을 먼저 받아들인 뒤, 불교와 명상의 관점에서 마음을 정리할 수 있도록 돕는 흐름을 강화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대불교신문의 기사와 불교 콘텐츠와도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는 구조도 마련했다"며 "단순 챗봇이 아닌, 불교적 관점으로 마음을 살피는 대화형 안내자로 발전시킨 것이 이번 리뉴얼의 핵심"이라고 전했다.

리뉴얼과 함께 새로운 캐릭터도 공개됐다. 새 '해심이' 캐릭터는 부엉이를 친근하게 형상화했다. 현대불교신문 디지털미디어국 관계자는 "어둠 속에서도 보는 부엉이의 눈은 무명을 밝히는 지혜이고, 밤에도 깨어 있음은 방일하지 않는 수행자의 정진"이라며 "리뉴얼된 '해심이'가 다양한 상담을 통해 불자들의 무명을 깨우는 존재가 되길 바라는 마음을 담아 캐릭터를 제작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현대불교신문은 공식 캐릭터 '초심이'의 자체 인스타그램 계정도 개설했다. 향후 '초심이' 계정에서는 신입사원의 좌충우돌 오피스 라이프를 소재로 한 콘텐츠들이 게시될 예정이다.

한명우 현대불교신문 대표는 "AI 상담봇 '해심이'는 불자들에게 더 가깝고 친숙한 방식으로 신행 및 수행 상담을 제공하고자 하는 본지의 원력"이라며 "앞으로도 AI 기술을 적극 활용한 미디어 콘텐츠와 상담 서비스 등을 사부대중에게 지속적으로 선보일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어 "본지 캐릭터 '초심이' IP를 활용한 다양한 미디어 콘텐츠도 계획 중"이라며 "향후 '초심이'를 브랜드화해 다양한 문화사업들을 전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통도사에 불교 최초 '개방형 수장고' 들어섰다

서운암 개방형 수장고 준공
영축산 산세 품은 설계 눈길


영축총림 통도사는 5월 15일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을 봉행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 총무원장 진우 스님 등 주요 내빈들이 준공 기념 테이프를 자르고 있다.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자 불지종가(佛之宗家)인 영축총림 통도사가 불교계 최초로 '개방형 수장고'를 건립하고 사부대중에게 문을 활짝 열었다.

통도사(주지 현덕 스님)는 5월 15일 서운암 개방형 수장고에서 '통도사 박물관 개방형 수장고 준공식'을 봉행했다.

이번 개방형 수장고는 1999년 개관한 기존 성보박물관의 노후화와 수장공간 부족 문제를 해결하고, 소중한 성보를 후세에 온전히 전승하기 위해 건립됐다. 2021년 12월 첫 삽을 뜬 이래 총 사업비 132억4700만원(주변 정비사업 7억6000만원 별도)이 투입돼 대지면적 4986㎡, 건축면적 2758㎡에 지하 1층, 지상 1층 규모로 완공됐다.

일반적으로 박물관 수장고는 유물의 안전한 보존을 위해 폐쇄 공간으로 운영된다. 그러나 통도사는 유리창 등을 통해 수장고 내부의 성보를 대중이 관람할 수 있는 '개방형'을 채택했다.

무엇보다 눈길을 끄는 것은 수장고의 자연친화적 설계다. 수장고는 웅장한 영축산의 산세와 부드럽게 어우러지도록 지붕 전체를 녹지로 조성해 거대한 건축물이 주는 인공적인 위압감을 덜어냈다.

종정 중봉 성파 대종사는 치사를 통해 "임진왜란 당시 살생을 금하는 스님들이 나라를 구하기 위해 창칼을 들고 나섰듯, 오늘날 나는 '문화예술의 칼'을 들고 세계를 흔들어 볼 생각"이라며 "수장고 준공은 끝이 아니라 대한민국 문화예술을 어떻게 보존하고 창달할 것인지 중대한 책임을 지는 시작점"이라고 강조했다.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를 통해 "형체 있는 문화유산을 보존함은 곧 형체 없는 부처님의 마음을 보존하는 것과 같다"며 "비장(秘藏)에서 현현(顯現)으로 회향해 사부대중의 눈높이에서 마주하게 한 것은 대중의 삶 속에서 부처님의 가르침이 살아 숨 쉬어야 한다는 수기설법의 정신"이라고 말했다.

주지 현덕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문화적 가치를 공유하며 불교의 가르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열린 공간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다짐했다.

한편 통도사는 개방형 수장고 준공을 기념해 성파 스님의 예술적 경지를 만날 수 있는 '선예전(禪藝展)'을 개최하고 있다. 하성미 부산주재기자

천년 다맥을 이어내다

쌍계사, '차문화대축전' 개최
5월 8일 다맥 전수식 봉행도



조계종 제13교구본사 쌍계사(주지 지현 스님)는 5월 8일 괘불전과 팔영루에서 '2026 쌍계사 차문화 대축전 및 진감·초의·만허·고산 다맥전수식'을 봉행했다.

이번 행사는 차나무 식재 1198주년을 기념해 마련됐으며, 한국 차문화의 전통과 다맥 정신을 계승하고 세계 차문화 교류의 장을 확대하기 위해 열렸다. 축전은 5월 7일부터 10일까지 나흘간 쌍계사와 차나무 시배지, 야생차박물관 특설무대 일원에서 진행됐다.

8일 열린 행사는 육법공양을 시작으로 삼귀의와 반야심경 봉독, 108헌다, 인사말, 대회사, 축사 순으로 이어졌으며, 이후 신라다례와 두리차회 시현, 다맥전수식이 차례로 진행됐다. 신라다례 시현은 종정차문화회가 맡았고, 두리차회 시현은 혜원정사와 차인단체가 함께 참여해 전통 차문화의 깊은 향기를 선보였다.

쌍계사 주지 지현 스님은 인사말에서 "육조 혜능 조사를 모시고 있는 쌍계사에서 차문화대축전을 함께하게 돼 뜻깊게 생각한다"며 "고산 대선사께서 시작한 차문화대축전이 올해로 26회를 맞은 만큼 앞으로도 수행과 차문화가 함께하는 전통을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한국선다회 이사장 겸 쌍계사 회주 영담 스님은 대회사에서 "올해는 차나무를 최초로 심은 지 1198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라며 "2년 뒤 1200주년에는 종단과 정부, 지역사회가 함께하는 더욱 큰 규모의 국제 차문화 축제로 발전시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은 축사에서 "앞으로 중국과 일본, 스리랑카 등 세계 각국을 초청해 국제 차문화 박람회와 같은 세계적인 축제로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며 "2년 뒤 1200주년에는 세계인이 함께하는 차문화 엑스포로 성장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에서도 적극 힘을 보태겠다"고 밝혔다.

한편, 축전 3일차인 9일에는 야생차박물관 특설무대에서 청소년 프로그램 '茶-디카시로 만나다'가, 마지막 날인 10일에는 다문화 가족과 함께하는 'K-어울림축제'가 열렸다.

하동 쌍계사=성낙두 경남지사장

진우 스님, 해인사자비원 찾아 위문

5월 8일 광명요양원서…후원금 3000만원 전달



조계종 총무원장 진우 스님이 5월 8일 어버이날을 맞아 합천 해인사자비원 광명노인요양원을 방문해 복지후원금 3000만원을 전달하고 승려 노후복지 확대 의지를 밝혔다.

이날 진우 스님은 광명노인요양원을 운영하는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의 노고를 치하하고, 요양원 운영 현황을 살핀 후 입소 어르신들을 위문했다.

진우 스님은 "광명요양원과 같은 수행자 복지시설이 더욱 확대될 수 있도록 종단 차원의 관심과 지원을 이어가겠다"며 "후원과 화주 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승려복지 기반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전국비구니회장 광용 스님은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바쁜 종무 속에서도 광명요양원을 방문해 준 데 감사드린다"며 "총무원장 스님의 관심과 지원이 출가 수행자들에게 큰 위안과 희망이 되고 있다"고 인사했다.

전국비구니회 스님들은 떡과 과일, 두유 등 먹거리와 비누, 한방파스 등 2000여 만원 상당의 물품을 요양원에 전달하며 자비나눔을 실천했다.

성낙두 경남지사장

불기2570(2026)년 부처님오신날
우리도 부처님 같이
마음은 평안으로 세상은 화합으로

